

우리들이 사는 세상_3화

우리

복잡한 하루 속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피식 웃게 되는 시간 여기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조금은 색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항상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모님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진짜로 청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수어 통역사 채주연 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채주연 (수어 통역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채주연 (수어 통역사)

안녕하세요. 저는 수어로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 수어 통역사 채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실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게 항상 학교 다닐 때도 말과 함께 이렇게 수어를 좀 이렇게

쓰셔서 독특하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되게 수어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같은데 수어 통역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생각해 보면 저는 대학교 때 원래는 저 주변에 제 주변에 농인이나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관련이 없었는데 대학교에 오고 나서 저희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채플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모두 다 앞을 보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반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좀 궁금증이 생겨서 막 계속 쳐다봤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막 찾아가 보니까 앞에 있는 분이 농인 그 맞은편에 있는 분이 수어통역사셨던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본 수어통역의 장면이었던 거죠.

우리

어떠셨어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되게 근데 뭐에 딱 꽂혔던 것 같아요. 마음에 뭔가 딱 이렇게 뭔가 찌릿했던 그런 경험을 그때 겪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정을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정말 꽂혔다 그 친구는 좀 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또 ENFP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해서 그 친구 번호 물어보고 친절하고 엄청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막 공강 시간에 연락해서 어디야 어디 있어 막 물어보면서 그 친구를 막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친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어쨌든 저희가 관계가 없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채주연 (수어통역사)

근데 만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청각 장애인 하면 장애인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막상 친구가 되다 보니까 또 제가 수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장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수어를 배우니까 소통할 수가 있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고, 수어 통역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꼈던 부분들이나 어떤 사회의 차별을 느꼈던 점점이 이 친구랑 저랑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통역이 있는 수업은 통역을 보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통역이 없는 수업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를 한다고 해도 혼자 멍때리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쵸.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그리고 또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통역을 지원받기까지 그 장애 학생 지원 센터와 엄청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장애 학생 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 또 이 친구가 구어를 조금 하는 친구였다 보니까 구어를 잘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넌 잘 말하는데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사실 장애 학습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좀 요즘은 그래도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많이 나아졌다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제 네 농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보통 우리가 청각장애인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뭐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처럼 장애인을 지칭하는 관점에서 농인이라고 해서 수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각 장애가 있지만 내가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농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농인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많이 질문을 던져요.

네 근데 한 2년 전만 해도 거의 다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반 정도가 농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도 생기시고 또 수화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불렀었지만 요즘에는 한국수어법이 생기면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수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매체나 이런 부분들의 수어가 언급이 되고 농인분들의 삶이 좀 노출이 되면서 좀 변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도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공학회를 만들고 저의 환경은 또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상황인데 맞아요.

되게 신기했었던 게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농인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각장애인 분들 은 맹인이라는 말이 비하하는 말로써 그맹자의 그 어원이 약간 우둔하다 이런 느낌이어서 맹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차이가 또 있구나 하는 또 생각도 들었고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그러네요

우리

그래서 되게 다르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같은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냥 또 한편으론 각각의 그냥

채주연 (수어 통역사)

네 맞아요.

우리

사람 대하듯이 대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과도한 배려일까요?

혹은 이제 이런 보호 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저도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각각 또 주의해야 되는 점들에 있어서 되게 오늘 또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상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또 제가 신경 써야 된다 얘기도 했는데 통역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통역할 때는 저는 어쨌든 이게 언어를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농인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어떻게 통역하면 좋을까? 그 농인분들이 보실 때 이제 시원하다라고 쓰시거든요. 수어를 봤을 때 너 수어 시원하게 한다. 근데 그게 제일 극찬이에요.

수 잘한다도 좋은데 눈이 이제 시원하신 거죠. 깔끔하고 시원하게 이해가 된다. 약간 이렇게 쓰실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시원한 수어 통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음성 언어는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맞아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의미들이 오역이 되지 않도록 잘 전달하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역 하려고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음성 통역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지금도 통역사지만 저는 꾸준히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우리

네네

채주연 (수어 통역사)

평생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청인분들, 비장애인 분들을 우리 청인들을 청 따서 청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쪽 단어가 좀 더 익숙해 그래서 청인분들, 비장애인 분들이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

음성 언어 말투 다른 것처럼 농인분들도 수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수어를 되게 빠르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박또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구사하는 어휘가 다른 것처럼 수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는 수어와 분위기와 그런 문장력들을 잘 파악하고 진짜 그분이 말하시는 것처럼 적합한 단어들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농민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더 시원한 수어 통역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성장 중입니다.

우리

혹시 이거는 좀 안 해야겠다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통역할 때?

채주연 (수어 통역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면 제가 그 속기사에 대한 글을 한번 봤었는데 가끔 이제 통역 저는 엄마니까 이렇게 뭐 윈?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이거 별로 필요 없는 얘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엄마니까 엄마니까 진짜 모든 걸 다 이제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청각장애인들은

사회와 정보에 절단이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환경과 절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각장애 더 많이 오해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 이제 정서적 거리나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대화가 진짜 많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느끼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청각장애인분들에게 통역할 때 아 이런 건 조금 진짜 주의해야겠다 혹은 이런 부분은 유독 예민해하신다 이런 게 좀 있다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으세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어쨌든 무대 위에 쓸 때는 빠짐없이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오역하지 않게 제일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통역을 의뢰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통역을 의뢰하신다거나 부동산 뭐 이런 것 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긴밀한 것 들도 많이 가는데 그럴 때는 사전에 농인 분들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통역을 시작하기 전에 수어 스타일이라든가 그 전의 상황들 알고 이해하고 통역을 했을 때 제가 통역할 수 있는 범위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바로 개인적으로 통역을 의뢰를 해 주시면은 좀 미리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고 인사라도 좀 하고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고 갔을 때의 통역의 질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되게 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여기서도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신 것처럼 뭔가 뭐 청각 장애인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윤리 강령 뭐 이런 거라기보단 하나의 또 사람으로서 소통하면서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개인적인 통역하니까 떠오르는 게 좀 내가 이걸 좀 새로웠다 하는 통역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저도 되게 요즘에 인스타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깨알 홍보도 되나요?

우리

네 인스타 홍보해 주세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인스타로 채소 할 때 채주연 검색하시면은 **juyeon332** 검색하시면 통역 의뢰나 이런 부분들을 인스타로 많이 주세요.

네 이제 보통 개인적으로 다양한 통역 의뢰를 하시는데 최근에 올해 제일 기억 남았던 통역이 신점이었어요. 신점 통역이었는데

우리

네 기독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채주연 (수어통역사)

저는 크리스천 심지어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농인 분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신점 통역을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주 타로 이런 것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용한 곳이라고 하던가요?

채주연 (수어통역사)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분이 멀리 지방에 사는 분이신데 이거를 보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한 두세 시간 걸려요

우리

장소가 어디죠? 거기가?

채주연 (수어통역사)

예약을 하신 곳은 강남 하나 신사 하나

우리

어머 2개를 동시에?

채주연 (수어통역사)

오전 오후로 나눠서

우리

되게 간절하셨습니다.

채주연 (수어통역사)

이제 첫 번째 했던 그분은 고급진 옷을 입으시고 약간 되게 예쁜 언니처럼 생기신 그 무당이셨는데 그분은 좀 신기했던 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이렇게 굴리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통역을 하면서 눈을 굴렸어요.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우리

왜 굴리신 거예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똑같이 잘 전달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네 좀 했고 그리고 기억 남았던 게 두 번째 통역을 했을 때 네 두 번째 분은 어떤 할머니 신을 모시는 분이셨는데 네 그분이 진짜 진짜 비시더라고요.

이렇게 빌면서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도 어쨌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을 통역을 다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비시다가 이제 할머니가 오셨나 봐요.

“그 남자는 안 돼!” 이러면서 막 목소리로 아주 너를 나쁘게는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어쨌든 통역을 하니까 똑같이 했죠.

네 근데 이분이 통역이 끝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혹시 저한테 신들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통역을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통역사가 사라지고 무당이 온 줄 알았다. 저를 보면서 제가

신들린 줄 알았다고 해요.

우리

연기가 필요한 통역까지 하셨네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그래서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통역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너무 웃기네요. 혹시 오전 오후가 똑같은 같은 분이 2개를 보신 거예요?

채주연 (수어통역사)

예.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어 통역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면 제일 좋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비밀 보장을 더 원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만약에 그 앞에서 해줬던 이제 점사가 뒤에 갔는데 반대의 점사가 나오면 같은 질문을 하셨을 거잖아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질문을 준비를 했지만 이분이 원하시는 그 주제에 두 분 다 사실 이렇게 원하는 답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도 통역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분을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보내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사실 나의 고민은 어쨌든 간에 약간 답정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그렇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이 있잖아요.

우리

되게 새로웠겠어요. 저도 한번 그런 공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되게

채주연 (수어 통역사)

맞아요.

뭔가 압도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두 번째 갔던 곳은 불상이라고 하나요?

우리

그렇죠

채주연 (수어 통역사)

엄청 큰 게 한 1.5미터 정도의 크기의 노란색 황금빛 불상이 5개로 좌우로 5개로 짹짹짹짹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향을 그 불상 바로 코 앞에 15cm 정도의 초가 있어요.

그거를 그 초에 이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명찰을 써서 이름을 걸어서 초가 다 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오시는 그분들의 소원을 빌어주는 그 초래요.

근데 그게 100만원이에요. 통역사로 갔기 때문에 그분을 말리지는 못했지만 역할을 다하고 왔습니다.

우리

그러면 실제로 통역을 하면서 좀 아 이건 진짜 화난다 혹은 이건 진짜 나도 화난다 막 이런 상황들이나

좀 슬프거나 뭐 이런 힘든 경험들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이것도 좀 이제 제가 농민분들이랑 같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

무슨 운동 하세요?

채주연 (수어통역사)

그 클라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임에서 우리 크루 친구한테 좀 적합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강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내원? 안내하시는 분께서 좀 불합리한 행동들을 하셨어요. 저희 크루원에게. 그래서 그 크루 리더님께서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됐고 이제 가운데서 어쨌든 저는 통역을 하러 간 거죠.

크루원이기도 하지만 통역사로 간 거죠. 저도 이제 의리가 발동돼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미 사실 그 크루원분께서도 이제 수어로 말씀을 하시고 그 안내원분은 음성 언어로 하시는데 해당되는 그 당사자분은 오진 않으셨고 그냥 그 기관에 있는 매니저 분이랑 소통을 하게 됐었어요.

그 농인 리더님도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크루원이 뭔가 피해를 받고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그래서 수어로 말씀하실 때 저도 수어와 그 표정 비수지라고 하죠. 표정을 함께 잘 전달을 했어요. 감정은 어쨌든 뱉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음성 통역을 한 거죠.

또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의 대면으로 계시는 그분께서 그 윗분의 전화번호를 주셔서 가지고 그분이랑 통화는 제가 제가 하고 이 전화 목소리를 수어 통역을 하고 그 농인분께서 수어 하시는 걸 제가 음성 통역으로 전화상으로 전달을 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서로 좀 예민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임의로 바꾼다거나 다르게 음성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메시지와 그 의미들을 전달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랑 통화했던 그 관리자분께서 저를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왜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던 거를 직접 본 것처럼 얘기했다.

과장죄로 고소를 하신대요. 되게 당황했는데 다행히 상황은 잘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그걸 고소할만한 거리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제 친한 친구가 뭔가 불합리한 걸 당한 것도 기분이 안 좋았고 또 이제 그 상황에서 크루 리더님이랑 이분이 소통하는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도 좋지 않았고,

갑자기 생뚱맞게 저를 고소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들까지 합쳐져서 되게 난처하고 좀 곤란했던 통역이 이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통역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농인분이 얘기한 거니까 그 내용은 본 게 맞는 건데

채주연 (수어 통역사)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보신 거죠.

우리

통역사분과 통화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통화하는 건 통역사가 아니라 이제 농인분과 통화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제 비장애인으로서는 이게 눈치상 뭘 말하는 건지도 느껴지고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그쵸 맞아요.

우리

농인 분도 이 말을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랬을 때 나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

저는 그런 걸 되게 엄마랑 있으면서도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막 엄마 너무 하면서 막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엄마도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전달하면 무조건 오해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날 것 그대로를 전하는 느낌인 거죠.

농인분들이 얘기하시는 방식이

채주연 (수어 통역사)

맞아요.

우리

이제 비장애인분들이랑 대화할 때 보면 우리는 좀 많이 지금 한 300바퀴 도나 이럴 정도로 좀 돌려 말하거나 그 뉘앙스를 전하거나 혹은 앞에 쿠션 매트 깔고 중간에 너무 수고하십니 다.

근데 혹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앞 문장을 사실 빼놓고 그냥 다이렉트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게 오해가 진짜 생길 수도 있는데 비장애인들의 문화와 언어 방식에 익숙해지니까 이거 그대로 전하면 오해할 텐데 내가 이것을 중재하는 것이 맞는가 통역사로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최대한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상황을 이해하셔야 그분이 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거랑 이해한 후에 말을 하는 건 선택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통역사로서는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상황을 온전히 이해를 하셨는지 그게 맞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전달이 됐고 이분이 이 말씀하고 싶은 게 맞는지 공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농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럴 때는 물어봐요. 내가 지금 나 혹시 내 생각 한번 말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거나 혹시 내가 조금 도와줘도 돼? 이렇게 물어보거나 일단 통역 상황을 다 전달하고 그거외로 내가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소중한 아끼는 친구라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 이거 이거는 통역 얘기 말고 내 생각인데 조금 얘기해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친구의 입장에서 한 번 또 갔다가 다시 통역으로 돌아오고 이런 케이스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진 않죠.

우리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어쨌든 그 분이시니까 그걸 또 꺾어내면서 비장애인과는 이렇게 소통하면 안 되겠구나를 사실 깨닫는 것도 그분의 몫인 거죠.

채주연 (수어 통역사)

네 맞아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농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이기도 하고 또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까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통역도 관계도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 친구분도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청각장애인과 소통하면서 좀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비장애인 분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 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가 농사회 이제 농인들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청인, 비장애인 분들은 음성 언어 우리가 들리는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농인분들은 이 시각 언어 수어로 시각적인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청인들보다 더 잘 보기도 하고 또 잘 표현하기도 해요.

좀 다른 점은 우리 비장애인분들 청인분들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뿐이고 수어를 배우게 되면 농민분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넓은 세계를 진짜 볼 수 있다.

그 세계관이 넓어지는 저는 통로가 수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세계가 넓어지셨어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저는 사실 제일 제가 많이 얘기했던 예시가 처음 만났던 농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만 만나다가 어쨌든 그 친구가 어 소통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이제 청인 친구들이랑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제가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뭐 잘하진 못했죠. 그때는 자격증이 없었고 서투니까 그냥 어설프게라도 어떻게든 막 했는데 이제 제가 이 친구만 만나다가 다른 농인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리고 통역사 자격증도 따고 싶고 공부도 더 하고 하려다 보니까 다 많은 농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농대연이라는 농대연 단체인데 농인분들만 다니는 대학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농인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사실 소통이 어렵다 보니 뭔가 소속감 이런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친구처럼 통역을 지원 못 받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농인분들의 이런 권리를 좀 같이 주장하고 연합하는 그런 단체가 농대연인데요.

거기를 소개받게 되어서 협력부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수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문자 통역 속기처럼 그거를 하는 걸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그렇게 많은 농인분들을 만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수어를 막 하시는데 원 말이야? 뭐라는 거야? 나 큰일 났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돼서 정말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처음에. 난 이걸 여기 내가 왜 왔을까 막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오히려 제가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수어를 모르니까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 게 어쨌든 수어를 이제 막 시작한 채주연이라는 그 청인 이상한 새로운 한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그 농인 임원 언니 오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막내였어

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제 눈높이에 내려와 주고 그런 함께할 수 있게끔 응원해 주고 아 나 잘 못하는 것 같아 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랬는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저를 좀 기다려주고 제 발걸음에 맞춰줬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내 생각에 농인 사회를 모르고 그냥 청인으로서 그냥 비장애인 사회라는 그 사회 속에 살다가 수어를 하면서 농사회를 알게 되고 그 농사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세계관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말 그냥 언어가 통하게 되면 이게 같이 소통할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계관의 확장도 있었던 것 같고,

국제 수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수어라고 안 하고 수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나라 분들과랑 소통할 수 있게 이제 다 똑같은 수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도 그 수화를 잘하지 못해 조금 해요.

조금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이제 인스타 같은 걸로 가끔 옛날에 방송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4명에서 하는데 한 명은 인도 사람 한 명은 영국 사람 한 명은 어디 일본 사람 한 명은 이제 한국 사람 그래서 넷에서 막 수화로 대화하는 거예요. 국제 수화로 대화하는 거예요. 되게 다른 그런 세계관이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리가 수어지 않나

우리

되게 수어의 장점이 어떤 한계를 간략하게?

그리고 그거의 핵심을 조금 표현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 미국에 출장을 가서 이제 외국인 청각장애인들을 만났었을 때는 그 수어를 하시는데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더라고요.

채주연 (수어통역사)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배부르다라는 수어가 배 쪽을 가르치고 표현을 한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목 끝까지 찼다를 표현하고 이러는 게 문화가 달라서 나오는 수어구나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괜히

그거 아세요? 내적 친밀감?

채주연 (수어 통역사)

맞아요. 맞아요.

우리

수어한다 이러면서

채주연 (수어 통역사)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한번 말 걸어볼까? 막 이러면서 맨날 가서 어 저 코다인데요 막 이러면서 **coda**는 아니까 그 초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저희 모임 한번 오세요.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우리

아아 감사합니다.

우리

유독 또 소통하면서 이제 비장애인 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또 그들만의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채주연(수어 통역사)

맞아요

우리

그래도 비장애인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제가 이제 가끔 초반에 소개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박수할 때는 이렇게 박수를 치 죠.

우리가 소리를 듣는 농인 분들은 반짝이는 박수 소리에서 이제 양손을 반짝반짝 좌우로 이렇게 흔들며 주는 느낌으로 박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이제 우리가 행사를 갈 때 보통 이렇게 집중하세요. 여기 봐주세요. 이렇게 목소리로 하잖아요. 네 농인분들은 강대상이 꼭 있으면 거기에 조명을 켜다 켜다 켜다 켜다 그럼 다 같이 앞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제일 또 특별한 거는 수어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얼굴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 나든 디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네 이게 매번 쓰기는 또 힘들거든요. 지웃하고 우 쓰고 이응하고 여 쓰고 니은 쓰고 막 계속 쓰기 힘들니까 맞아요. 얼굴 이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생겨요.

우리

특징 같은 것들

채주연 (수어 통역사)

특징을 따고 해서 농인분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면 우리 족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수어 이름 이 생기는 거죠.

그걸 소개할 때 자기의 수어 이름 얼굴 이름을 함께 소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구나.

진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라는 게 관심도 많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걸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유독 이런 통역을 했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시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사실 저는 항상 보람을 느끼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에 대한 그 뿌듯함이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제 꿈은 위로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저는 꿈은 어떤 직업이 아니라 그냥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가 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 꿈은 위로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꿈은 비전을 주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수어 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 옆에서 그냥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내고 있고 사실 저도 원래는 이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었고 좀 힘든 학창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지금처럼 인터뷰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됐어.

약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 같이 하고 있어요.

제일 기억 남았던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지만 그 한 번 농인 동생이 있어요. 되게 친한 동생인데 그 동생이 그 친한 오빠 친오빠 부부가 지금 부산에 살거든요.

다 청인이예요. 그 친구는 가족이 다 청인이고 자기만 농인이예요.

근데 이제 부산에 같이 저랑 놀러 갔다가 그 오빠네 부부를 이제 만나게 돼서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막 오픈카도 태워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같이 막 가는데 오빠가 막 이제 장난을 쳐요.

아유 못 생겼어 못생겼어 이라고 막 동생한테 장난을 치면 제가 옆에서 수어 통역을 해줘요. 똑같이 그 동생이 막 더 오빠 오빠 얼굴 오징어 오징어 킹받쥬 킹받쥬 막 이제 이래요. 그러면은 동생이 수어를 하면 제가 그걸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오빠 못생겼어요. 오빠 진짜 진짜 운전 왜 이렇게 못하냐 아유 킹받쥬 이렇게 말 하는 거를 음성 통역을 해 주는 거죠.

오빠한테 그래서 막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가기도 하고 카페에 가서 서로 어떤 궁금했던 거 삶을 나누는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하루 종일 같이 놀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언니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뭐가? 그랬더니 언니 나는 항상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는데, 없는 사람이었는데 언니 덕분에 내가 존재하게 됐어 있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되게 엄청 감동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같이 울면서 나는 나는 너 덕분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너는 너가 말했던 것처럼 있는 사람이 됐고 나는 너 덕분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됐어.

우리 관계가 너무 감사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움직이고 나도 같이 즐기는데 통역을 하면 저는 되게 일처럼 느껴졌어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그럴 수 있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대화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절이나 언제 이렇게 가면은 저는 항상 그 통역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거를 뭔가 즐겁게 한다가 보다는 저는 되게 힘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할머니의 말을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는 1차적으로 부산 사투리 쓰세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정말 쉽지 않네요.

우리

외할머니 부산 사투리 일차적으로 쓰고 나는 일단 일차적으로 사촌들과 놀고 싶어. 근데 저는 이제 사촌들과 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통역을 막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에너지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친한 친구지만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통역을 해야 한대라는 게 전혀 이제는 힘드시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농인분들이 고맙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고생했어 아니면 고마워 이런 표현들이 그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냥 사라지고 그냥 나는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부분, 해야 하는 일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만 그런 어쨌든 체력적인 소모보다 감정적인 뿌듯함과 농인분들이 해 주시는 그 말로 인한 따뜻함이 이 작은 체력적인 힘듦을 잊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참 이게 맞아요. 별거 아닌 것도 이제 수고했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그래 내가 오늘 이 사람의 답답함과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으로 어려워진 이 모든 과정들에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면 되게 보람찬 순간일텐데 그러지 않으면 진짜 힘들기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만난 것 같으세요.

저희가 회사 사내 이벤트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채주연 (수어 통역사)

너무 좋아요. 이벤트 좋아요

우리

이게 뭐냐 하면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어떤 일정 중간 포인트에서 저희가 숫자를 말하면 그 숫자를 다 잘 기록해 주신 분에 한해서 회사에 서 이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 않고 랜덤으로 오시는 게스트 분이 하나를 짚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1부터 99까지의 번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채주연 (수어 통역사)

저는 ? 하겠습니다. ?월 ?일 농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 플러스 ? 해서 ?

우리

? 플러스 ? 해서 ?.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친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었었던 게 제일
신기했던 건 이제 드라마나 또 영화 이런 데에서 수어 감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되게 멋있어 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 영화에도 나오지 않으셨나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네 맞습니다.

우리

네 하면서 좀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또 재미있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무거운 얘기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체에서
많이 다양하게 의뢰를 받고 또 활동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영화에 출연했던 역할은 수어 통역사
역할이 했거든요.

듣고 통역하는 역할이라서 제가 하는 부분은 물론 감사하게도 맞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영화 매체에서는
실제로 농인 역할의 배역을 비장애인, 청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게 실제로 농인 배우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외적으로도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시고 또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실제로 수어도 능숙하게
잘하시는 농인 분들이 많은데 매체에서는 어쨌든 어 청인 비장애인 모델에게 배우에게 수어를 가르쳐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방 사투리를 하는 배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 사람이 사투리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하면서 연기를 한다고 치면 저희가 되게 몰입도가 떨어지겠죠.

우리

맞아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농인 배역을 청인이 맡아서 수어 연기를 한다면 게 어쩔 수 없이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농인 배우들이 아예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배역 역할을 받아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역할의 기회들이 농인분들에게 우선순위로 가지 않는다는 현실이 저는 조금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주변에 농인 동생도 실제로 농인 배우로 활동을 하고싶어 하는 친구도 있고 최근에 이제 열혈사제 2에 나왔어요. 두 번째 씬에 맨 마지막 끝쪽에 이제 나오는 농인 배역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역할들이 사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농인 배역을 농인에게 섭외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크게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좀 된 영화인데 코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실제 배우분들이 다 청각장애인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맞아요.

우리

되게 울컥하기도 했고 사실 이제 상 받을 때 윤여정 배우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되게 이것을 배려하시고 영어 수어를 알고 쓰셨었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그거 보면서 참 해외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있는 거다, 열려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했고 이번에 사실 전시회에 출장을 가면서도 느꼈 던 건 수어 통사분이 두 분 정도 붙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마다 바뀌요. 30분마다.

로테이션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진짜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되니까 시각과 청각 둘 다 복수 장애가 있으신 분은 중복 장애가 있으신 분은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사와 그냥 수어 통역사 이렇게 두 분을 꺼서 이제 손으로 또 이렇게 네 촉수화로 또 하시는 걸 보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구체화가 돼 있는데 특히 아직까지는 또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의 취업이나

이런 바닥? 판이 많이 넓지 않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또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채주연 (수어 통역사)

이런 어쨌든 수어를 쓰는 역할들에 좀 농인 배역들이 많이 캐스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감독님들이 어쨌든 이 사실감을 위해 이제 CG도 안 하고 대역도 안 쓰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어필하시잖아요.

평소에 배우분들이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청각장애인분이 등장하는 요소의 드라마와 영화라면 또 청각장애인분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채주연 (수어통역사)

금방 빨리 왔네요.

우리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수어 통역과 또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재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채주연 (수어통역사)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그 과정들을 한번 쑥 훑어보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또 대학교에서 친했던 동생이 동생분이 지금 저랑 대화를 하고 있다 보니 그때 만났던 시간 들도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이런 인연도 또 감사하고 그 대학교에서 만났던 그 농인 친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농인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되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와 또 보람 느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그때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기도 하면서 참 수어를 알게 되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수어 통역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감사하고
제가 놓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나는 할머니 돼서 손이 안 돌아갈 때까지 수어를 할 거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수어 통역 일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일도 알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한 번이니깐 그리고 수어는 어차피 평생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피부 관리사 자격증 미용사 이런 것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카페를 차리거나 피부 미용 피부 관리실을 차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농인분들을 또 모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채주연 (수어통역사)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계관이 확장되고 뭔가 넓어지는 하나의 이런 다리인 수어가 참 저에게 감사하고
또 좋은 좋은 인연 수어에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장애인 분들 인터뷰하고 하면 항상 듣는 말이 내가 알던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었고 또 그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고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그
말이 저도 오늘 다시 한 번 또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대화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주연 (수어통역사)

감사합니다.